



주간 통일정세

2013-4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노동당 창건일 앞두고 경축 분위기 띄우기(종합)(10/7,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이 노동당 창건 68주년 기념일(10월10일)을 앞두고 경축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다고 7일 연합뉴스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보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7일 이틀 동안 허정숙 전 당 비서의 글 '우리 당 기(旗)와 당 마크에 깃든 이야기를 나눠 게재함.

- **北 김정은, 국가과학원 버섯연구소 현지시찰(10/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공사가 끝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 연구소를 둘러본 김 제1위원장은 "중앙버섯연구소 건설을 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까지 끝낼 데 대해 지시했는데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것을 체질화한 인민군대이기에 기어이 해냈다"며 '대만족'을 표시함.

- **北, 김정일 黨총비서 추대일 맞아 '당 업적' 부각(10/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김정일 동지의 당 건설 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1997년 10월 8일 김정일 동지를 당 총비서로 모신 것은 당 건설 위업 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전함.
 - 또한 "수령 중심의 당 건설 사상과 이론을 제시한 것", "당을 선군혁명의 향도적 역량으로 강화시킨 것", "당을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어머니 당으로 발전시킨 것" 등을 김 위원장의 중요한 '업적'으로 꼽음.

- **北, 김정은 집권 후 당·정·군 주요인사 44% 교체(10/8, 연합뉴스)**
 -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 당·정·군의 주요 인사 218명 중 44%인 97명이 교체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연합뉴스가 통일부를 인용하여 전함.
 - 통일부가 8일 공개한 '김정은 체제 이후 주요인사 개편 특징'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첫해인 지난해에는 68명(31%)을, 올해는 29명(13%)을 교체함.



- **北, 김정은 새 이상화물서 '주민 친화적' 행보 부각(10/8,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새로운 이상화 영상물을 공개했으며 김 제1위원장의 주민 친화적인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목된다고 연합뉴스가 8일 조선중앙TV를 인용해 보도함.
 - 조선중앙TV는 지난 7일 오후 6시 50분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 장병에게 안겨주신 동지적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기록영화가 새로 나왔다"라며 새로 제작한 이상화 영상물 '위대한 동지' 제1부 '선군의 한 길에서'를 처음 내보냈고 다음날에도 이 영상물을 재방영했는데 북한이 시리즈로 된 김정은 이상화 영상물을 제작해 방영한 것은 처음임.

- **北 김정은, 軍육종장·일용품공장 현지지도(10/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육종장 건설 현장과 일용품 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함.
 - 통신은 육종장 1단계 건설이 "성과적으로 끝났다"며 1천 500여 정보(약 1천500만 m²)의 부지에 수백 정보의 풀판이 만들어지고 육종연구소, 관리 청사, 살림집(주택), 야외 우리 등이 세워졌으며 가축 사육도 시작됐다고 소개함.
 - 건설 현장을 둘러본 김 제1위원장은 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까지 1단계 건설을 마무리하라는 자신의 명령이 이행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건설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주도 세밀하게 밀고 나가 이 지구를 현대적인 육종장으로 더 훌륭히 변모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北 리설주 24일만에 공식 등장...건물 준공식 참석(종합2보)(10/9, 조선중앙TV)**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9일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주택) 준공식 참석했으며, 이는 지난달 15일 김 제1위원장과 함께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를 관람한 이후 24일 만이라고 연합뉴스가 9일 조선중앙TV를 인용해 보도함.
 - 조선중앙TV는 준공식 소식을 전하면서 행사에 참석한 김 제1위원장과 리설주의 모습을 방영함.
 - TV는 김 제1위원장이 리설주와 함께 교육자 살림집 내부를 둘러보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리설주는 직접 싱크대 수도를 틀어 물이 잘 나오는지 보거나 찻잔을 정리하기도 했으며 김 제1위원장이 동행자들과 말할 때는 웃음을 짓는 자연스러운 모습도 보도함.

- **김정일 넷째부인 김옥 동생, 김일성대 1부총장서 퇴임(10/10,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넷째 부인인 김옥의 동생 김균이 김일성종합대학 1부총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지난 6일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



원장의 감사 수여 명단을 보면 '김일성종합대학 1부총장에 김군 대신' '최정호'라는 이름이 명시돼 있음.

- **北 노동당 창건 68주년…김정은에 충성 강조 (10/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노동당 창건 68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과 체제 결속을 강조함.
 - 신문은 1면을 통틀어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혁명적 당이다'는 제목의 사설과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게재함.
 - 또한 "올해 당 창건 기념일은 김정은 동지의 영도의 현명성을 과시하고 원수님의 두리(주위)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을 만방에 떨치는 의의깊은 계기"라고 밝힘.

- **北 김정은-리설주 부부,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종합)(10/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0일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양에서 노동당 창건 68주년을 기념하는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번 공연이 "사상성과 예술성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이런 혁명적인 예술단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라고 말했으며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게 10월 17일까지 공연을 계속할 것"을 지시했다고 통신이 전함.
 - 이번 공연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박도춘 당 비서,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양건·김영일·김평해·곽범기·문경덕 당 비서,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태종수 함경남도당 책임비서 등이 동행함.

- **北 김정은, 새 전투함 기동훈련 참관…위협발언 없어(10/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 제1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전투함정들을 둘러보고 기동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새 전투함들의 배수량, 속도, 무기 및 전투기술기재 성능 등을 점검하고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단기간에 지능화와 경량화 수준이 높은 전함들을 훌륭히 건조했다고 평가함.
 - 전함 기동훈련 참관에는 리영길 군 총참모장, 김명식 해군사령관, 주구창 당 기계공업부장, 홍영철 당 부부장이 수행함.

- **北 김정은, 평양 방직공장 현지지도(10/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종합생산지령실, 인견천직장, 견본실 등 공장 곳곳을 돌아보고 생산 상황과 새로 갖춘 현대적 방직설비들의 기술적 특성, 제품의 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했으며 "방직설비들의 고속도화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질 좋은 옷감과 각종 천을 더 많이 생산하자는 것이 당의 의도"라고 밝힘.
- 이날 현지지도에는 박봉주 내각총리, 백계룡 노동당 경공업부장, 박명순 당 중앙위 부부장, 안정수 경공업상이 수행함.

■ 김정은동향

- 10/8,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 (연건축면적 6,100㎡) 현지지도(10.8,중통·중방)
 - 최룡해(총정치국장), 최태복(당중앙위 정치국 위원), 리재일(당중앙위 제1부부장), 박태성·황병서(당중앙위 부부장) 동행
- 10/9, 김정은 黨 제1비서, 1단계 건설이 끝난 조선인민군 제621호 육종장 현지지도(10.9,중통·중·평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차수), 장정남(인민무력부장·육군대장), 황병서·홍영철(黨 부부장) 동행
 -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익철이 사업하는 일용품공장 현지지도 및 공정현대화 과업 제시(10.9,중통·중·평방)
 - 리만건(평안북도黨 책임비서), 홍영철(黨 부부장) 동행
- 10/9,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준공식, 10.9 '김정은·리설주' 부부 참가 下 평양 영웅네거리에서 성대히 진행(10.9,중통·중·평방)
 - 박봉주(준공사), 김기남, 최태복, 문경덕, 김용진(내각부총리) 등 참가
 - '김정일·리설주' 부부, 10.9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 입사할 교원 연구사들과 기념사진 촬영(10.9,중통·중·평방)
 - 박봉주(내각총리), 김기남·최태복(黨 비서들), 문경덕(평양시 당책), 태형철(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김태희(김일성종합대학 당책) 참가
 - 김정은 黨 제1비서, 세포등판 개간전투를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10.10,중방)
- 10/10, 김정은 黨 제1비서, 10.10 0시 금수산태양궁전 김일성아버지 참배(10.10,중통·중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인 차수), 리영길(軍 총참모장인 육군대장), 장정남(인민무력부장인 육군대장) 등 참가
- 10/12,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조한 전투함정들 시찰 및 기동훈련 지도(10.12,중통·중·평방)
 - 리명길, 김명식, 주규창, 홍영철 동행
- 10/13,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된 문수물놀이장 및 미림승마구락부 시찰(10.14,중통·중방)
 - 최룡해(총정치국장), 마원춘(당중앙위 부부장) 동행
 -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현지지도(10.13,중통·중방)



- 박봉주(내각총리), 백계룡(당중앙위 부장), 박명순(당중앙위 부부장), 안정수(경공업상) 동행
- 김정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 '김은섭(80회)·김창원(70회)'에게 생일상 전달(10.13,중통·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黨 총비서 추대 1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10.7 4.25문화회관에서 진행(10.7,중방·중통)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김기남(보고), 문경덕(사회) 등 참가

나. 경제

- 북한, 기업 독립채산제 전환 가속화(10/10, 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새로운 경제관리 조치를 추진하면서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기업소들을 중심으로 독립채산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함.
 - 북·중 접경 지역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 광산이나 제철소 등이 독립채산제 도입을 위해 최근 당국으로부터 자체적인 수출입 권한과 투자 유치를 비롯한 대외업무 권한을 부여받음.
- 北 "대학도 경제강국 건설"...실용기술 개발 독려(10/12,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이 최근 대학의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경제 현장에 접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주목된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전함.
 - 노동신문은 지난 7일 경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과학연구 기풍'을 소개했는데 '대학은 어디까지나 교육 단위라는 관점'을 탈피해 연구를 현실에 접목하는 학풍을 확립했다고 선전함.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월 초 평양기초식품공장 현지지도에서 김책공대 교원과 연구사들이 생산 공정 현대화에 기여했다고 치하한 것도 이런 노력의 결실이라고 신문은 덧붙임.

다. 군사

- 北 매체, 리영길 군총참모장 임명 확인(10/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金正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전 0시 노동당 창건 68주년을 맞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전하면서 수행자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과 함께 리영길을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육



군대장으로 소개함.

- 리영길은 지난 8월 말부터 공개석상에 대장 계급장을 달고 나타났고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앞에 호명돼 군총참모장으로 추정됐지만 북한 매체에서 확인되기는 처음임.

● **北, 김정은 수행 일부 軍 장성 계급 강등(10/10, 연합뉴스; 노동신문)**

-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을 자주 수행하던 주요 북한군 장성들의 계급이 강등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노동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0시 인민군 지휘관들과 함께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하며 관련 사진을 실었으며 이 사진에서 최근까지 인민군 중장(별 2개)이었던 윤동현, 럽철성, 김수길 등이 소장(별 1개) 계급장을 단 모습이 확인됨.
- 이들 3명은 올해 들어 김 제1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을 자주 수행하던 주요 군부 인사들로 인민무력부(우리의 국방부) 소속이라고 뉴스는 전함.

라. 사회·문화

● **北, 동아시아게임 남녀축구에서 中·日 꺾고 첫 승(종합)(10/7, 조선중앙통신)**

- 중국 텐진(天津)에서 열리는 제6회 동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한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이 7일 중국을 1대0으로 이겼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앞서 통신은 북한 남자축구 대표팀이 전날 일본을 2대1로 이겨 첫 승리를 이뤘다고 밝힘.

● **'총살설' 은하수관현악단 노래 北방송에 등장(10/9,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9일 오전 7시 40분께 은하수관현악단이 부른 '조국찬가'를 방송하면서 리명일이 편곡과 지휘를 했으며 황은미 등 5명이 5중창을 했다고 소개함.

● **북한 "마식령 스키장 내년 1월 개장"(10/12, 중국신문사)**

-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 건설 중인 마식령 스키장이 내년 1월 정식 개장해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라고 중국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 북한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2013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 참석차 중국 단둥(丹東)을 방문한 북한 국가관광총국 김영일 부국장은 11일 "올해 초 착공해 건설 중인 마식령 스키장이 이미 기본적인 규모를 갖췄으며 11월 말 준공될 예정"이라며 "내년 1월에는 정식 운영을 시작해 국내외 관광객에 개방될 것"이라고 밝힘.



- **北 여자축구, 동아시아경기대회 우승(10/11, 조선중앙통신)**
 - 중국 텐진(天津)에서 열린 제6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경기에서 북한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북한 여자축구팀은 이날 일본 팀을 2 대 0으로 물리치고 1위를 차지함.
- **北 탁구, 동아시안게임 혼합복식 우승(10/12, 조선중앙통신)**
 - 중국 텐진(天津)에서 열린 제6회 동아시아경기대회의 탁구 혼합복식에서 북한이 우승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북한의 김혁봉-김정 조는 전날 열린 탁구 혼합복식 결승에서 남한 팀을 4-3으로 제압함.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美 '셋다운 사태' 비난..."반인민정책'의 결과"(10/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쟁으로 연방정부 셋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미국 건강보험 제도의 '반인민적인 성격'으로 인한 필연적 귀결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반인민적 정책이 낳은 필연적 산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셋다운 사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 이행을 위한 예산안을 둘러싸고 민주·공화 양당이 벌인 극한적 대립 때문에 초래됐으며 미국 건강보험 제도가 '한심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적함.
- **룩셈부르크, 대북 식량지원 위해 33만 달러 기부(10/8, 미국의소리(VOA))**
 - 룩셈부르크가 지난달 20일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25만 유로(33만 1천 달러·약 3억 6천만 원)를 기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을 인용해 8일 전함.
- **北, 을미사변 118주년 맞아 일본 규탄(10/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 118주년을 맞아 당시 일제의 만행을 '반인륜적인 국가테러 범죄'로 규정하고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재침 야망'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정세론 해설에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서술하고 "일본 살인악당들이 저지른 이 특대형의 반인륜적 만행은 전적으로 일본 반동정부의 계획적인 조종 밑에 감행된 국가테러 행위였다"고 밝힘.
- **美여행사, '평양서 새해맞이' 관광상품 출시(10/8, 연합뉴스)**
 - 북한에서 새해를 맞고 전통음식을 맛보는 관광상품이 등장했다고 연합뉴스



뉴스가 8일 전함.

- 미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우리투어(Uri Tours)'는 최근 북한에서 2014년 새해 전야와 신년 첫날을 보내며 '평양식 새해맞이'를 경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내놓음.

● **北** 외무성 "美, 대화 거부하고 도발에만 열중"(10/9,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9일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한·미·일 해상훈련을 거론하며 미국이 북한의 대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군사적 도발'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은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한사코 거부하고 군사적 도발만을 일삼고 있다"고 밝힘.
- 또한 "현실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우리는 긴장 격화의 악순환을 막고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이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함.

● **中** 시진핑, 北 김정은에 답전... "친선관계 발전"(10/9, 조선중앙통신)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보낸 축전에 답전을 보내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명의로 된 이 답전은 김 제1위원장의 축전에 사의를 표하며 "새로운 시기, 새로운 정세하에서 두 당,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전통적인 중·조(북) 친선협조관계가 끊임없이 발전되리라고 믿는다"고 밝힘.

● **中** 유람선, 내년부터 北 '접안관광' 가능해질 듯(10/11,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11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정부의 여우저진(尤澤軍) 관광국장은 전날 북한 측과 중국의 '접안관광'에 대해 세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부터 접안관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힘.

● **북·중, 단둥 종합박람회 '업그레이드'(10/11, 연합뉴스)**

- 11일 오전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2013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는 지난해 첫 박람회 때보다 규모가 크게 확대돼 이목을 끌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박람회의 주행사인 북·중 상품교역전람회에 올해 132개 기업과 무역회사를 파견했는데 지난해 100개사보다 30%가량 늘어난 것임.



- 케네스 배 모친, 아들과 평양병원서 상봉(종합)(10/11, 연합뉴스)
 -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5·한국명 배준호) 씨의 어머니 배명희(68) 씨가 11일 평양에서 아들과 상봉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아들을 만나기 위해 전날 평양에 온 배 씨는 "오늘 오전 병원에서 아들을 만났다"며 "(아들의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함.

- 유엔, '北 청천강호' 조사단 쿠바 파견 예정(10/12,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가 불법 무기를 싣고 운항하다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를 조사하기 위해 쿠바에 전문가단을 파견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대북제재위의 베셀린 코스토프 담당관은 RFA에 전문가단이 오는 21일께 쿠바를 방문해 청천강호에 실린 화물의 구체적인 내역과 북한에 보내려던 목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北 - 中 정부, 10.8 "새 계획연도 문화교류 집행계획서" 평양에서 조인(10.8, 중통·평방)
 - 北 황호남(대외문화연락처 부위원장) - 中 '류홍재'(駐北 중국 대사) 서명
-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10.9)】 美 항모 '조지워싱턴호' 참가 韓·美·日 해상훈련 실시 거론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우리(北)의 평화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이라고 비난(10.9, 중통·평방)
- '北-中 상품전람회(CNC공작기계 등 1,900여종·5만여 점)', 10.11 중국 단둥시 국문만국제상무성에서 개막 및 '북-중간 무역을 추동, 경제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될 것' 강조(10.12, 중통)
 - 제2차 조중 경제무역 문화관광 박람회(단둥)의 부문별 행사(상품전람회, 미술작품전시회, 관광사진전시회) 연일 진행(10.11, 중통·중방)

나. 6자회담(북핵)

- 국정원 "北 원자로 재가동...장거리미사일 엔진실험"(종합)(10/8,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8월 5mw급 영변 원자로 시설을 재가동하고, 평북 동창리 기지에서 비슷한 시기에 장거리 미사일 엔진 연소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北 통신 "한반도 비핵화는 '유훈'...대화 필요"(10/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9일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이며 이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함.
 - 통신은 북한의 제1차 핵실험(2006.10.9) 7주년을 맞아 발표한 논평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일관한 정책적 목표'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힘.
 - 또한 한반도 핵문제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조선반도 핵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요구만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한미일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비핵화 선행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함.

- **北 국방위 "美는 '고립압살조치'부터 전면 철회해야"(종합)(10/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는 12일 미국 정부에 '대북고립압살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국방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의 지난 3일 불가침조약 언급을 모독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은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 의미를 똑바로 알고 우리에게 대한 모든 고립압살조치를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고 밝힘.
 - 대변인은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불변의 정책적 목표로 강조하고 "미국은 무엇보다도 부당한 구실을 만들어 조작해낸 우리에게 대한 모든 제재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거론함.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노동신문 "南 '대화있는 대결'은 유신독재의 구호"(10/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대화 있는 대결'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유신 독재 세력이 들고 나왔던 대결구호"라고 비난함.
 - 신문은 '대화 있는 대결은 북침 야망의 발로'라는 개인 필명 글에서 "원래 '대화 있는 대결'은 북남 사이에 7·4공동성명이 발표돼 대화와 협상의 문이 열렸을 때 유신 독재세력이 들고 나왔던 대결구호"라고 주장함.
 - "유신 통치배들은 '대화 있는 대결'을 힘으로 뒷받침한다고 하면서 무력증강과 북침 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놓으며 북남 사이의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전쟁 도발 책동에 미쳐 날뛰었다"며 "이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불신과 대결로 치닫고 분열의 장



벽은 더욱 높이 쌓이게 됐다"라고 덧붙임.

- **北 조평통, 한미안보협의회에 반발... "선제공격" 위협(10/7, 조선중앙방송)**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담화를 통해 7일 한미가 최근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강력한 대북억제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엄중한 도발"이라고 반발하며 "선제공격"에 대해 언급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은 전함.
 -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에서 SCM에서 북한 핵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 등에 합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번 군사적 모의는 조선반도에서 대화, 평화 과정을 파탄시키고 긴장을 격화시키며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엄중한 도발로 낙인하면서 이를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고 밝혔다고 방송이 전함.
 - 또한 "우리 인민군대는 원수들의 그 어떤 핵 선제 타격과 군사적 도발에도 다 준비돼 있다"라며 미국과 한국이 "우리의 경고를 끝까지 외면하고 북침 핵전쟁 도발의 길로 나온다면 주저 없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北 김기남 "남북관계, 엄중한 도전에 직면" 증문(10/7, 연합뉴스)**
 - 북한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7일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개선돼 나가던 남북관계는 오늘 또다시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김 비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16주년을 맞아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 높이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실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北, 한미일 훈련 美항모에 반발... 軍 동원태세 지시(10/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부는 한·미·일 해상훈련에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 군부대에 작전 동원태세를 지시했다고 8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총참모부가 대변인 담화에서 조지워싱턴호의 부산 입항을 비난하며 "10월 5일 조선인민군 각 군종, 군단급 부대들에서는 최고사령부로부터 이미 비준된 작전계획들을 다시 점검하고 미일침략자들과 괴뢰들의 일거일동을 각성 있게 주시하면서 임의의 시각에 즉시 작전에 진입할 수 있는 동원태세를 유지할 데 대한 긴급지시를 접수하였다"고 전함.
 -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핵동력항공모함을 포함한 미제침략군의 핵 타격 수단들이 조선반도(한반도) 주변지역 상공과 수역들에 더 자주, 더 깊이 들어올수록 틀림없이 예상할 수 없는 참사를 빚어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北 "南부터 비방 멈춰야"...또朴대통령 실명비난(10/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는 9일 대남 비방을 중단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부터 대북 비방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무턱대고 그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신들부터 심각히 반성하고 바로잡아나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박근혜 일당은 우리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깊이 있게 새겨듣고 심각히 돌이켜보면서 고쳐나갈 마음부터 가져야 할 것이었다"며 "그런데 예상 외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 구차한 변명과 구실을 늘어놓으며 저지른 죄행을 회피하고 무마해보려고 획책하면서 더더욱 불손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비난함.

- **北 '대화록 사태' 비난..."南인사 방북발언 공개" 위협(종합)(10/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0일 2007년 남북정상 회담 회의록(대화록) 폐기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여권의 대응에 대해 "우리 최고준엄에 대한 우롱"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남측 인사들의 방북 당시 발언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대화록 소동을 우리의 최고 준엄에 대한 우롱으로, 우리에게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면서 준엄히 단죄 규탄한다"며 남측을 "정치적 패륜무리", "정치 깡패 집단"이라고 표현함.

- **北, 연방제 거둬 주장..."南 '체제통일' 추구" 비난(10/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연방제 통일 방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남한 정부가 체제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연방제는 가장 공명정대한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남북한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방제가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함.
 - 이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권처럼 '체제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을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와 '북의 변화 유도'를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것은 외세와 아합하여 우리의 준엄 높은 인민 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난함.

- **北조평통, 한·미·일 해상훈련 비난(10/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1일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한·미·일 해상훈련이 전날 시작된 데 대해 "우리에게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도대체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옹근 하나



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해 핵전쟁광란을 벌이면서 '조난구조' 훈련이요 뭐요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고 밝힘.

- 또한 한·미·일 등이 북한에 대해 "핵포기니, 위협이니, 도발이니 하고 떠드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날강도적 궤변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고 주장함.

● **조선신보 "北의 차대통령 '실명비판'은 충격요법"(10/1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실명 비난을 "상대방의 각성을 촉구하는 하나의 충격요법"이라고 주장함.
- 신보는 '박근혜 실명비판의 진상'이라는 글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원칙론'에 대해 "대통령도, 청와대도, 통일부도 저들의 '원칙'에 따라 세상 만사가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집단수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북남관계가 또다시 대결상태로 빠지게 된 요인의 하나는 그의 독선적인 견해를 밀어붙이는 '원칙론'에 있다"라고 주장함.

● **北, 통일부 겨냥 "최고존엄 헐뜯으면 징벌" 위협(10/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2일 통일부가 북한 '최고존엄'과 체제를 모독하고 있다며 징벌하겠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지난 9일 통일부 당국자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치를 '공적쌓기', '애민의 인상 부각' 등의 표현으로 헐뜯었다며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참을수 없는 극악무도한 중대도발"이라고 비난함.

● **北, 한·미·일 해상훈련 연일 비난(10/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한 한·미·일 해상훈련과 관련해 "적대세력들은 우리 혁명무력이 취하는 비상한 대응조치들에 대해 결코 경솔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함.
- 통신은 '전쟁이냐 평화냐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이 훈련에 대해 "위험천만한 군사적 모험으로서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평화적 노력과 내외여론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 **北 노동신문, 합참의장 후보자 비난..."보복대응"(10/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의 핵 공격에는 선제타격으로 대응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북침 핵전쟁 도발 선언'이라고 반발하며 '보복대응'을 경고함.
- 신문은 '전쟁 미치광이의 잠꼬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선제공격은 미국과 괴뢰들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며 "우리 혁명무력은 지금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만단의 동원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주장함.



■ 기타 (대남)

- 【「조평통」 대변인 담화(10.7)】 제45차 韓美안보협의회에서 '맞춤형 억제전략' 합의 등에 대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집을 터트리려는 극히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우리(北)를 넘보면 무자비한 선제공격으로 최후의 파멸을 안길 것'이라고 위협(10.7, 중통·중방)
 - 우리(北)군대는 그 어떤 핵 선제타격과 군사적 도발에도 다 준비되어 있으며 괴뢰패당이 북침전쟁도발의 길로 나온다면 주저 없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
 - '맞춤형 억제전략'은 '선제타격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과 괴뢰들의 흥계의 산물'이라며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10.7, 평방/북침 핵전쟁 각본들을 종합한 위험한 전략)
-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10.7)】 美 '조지 워싱턴'호 참가 '韓美 연합해상훈련(10.8~10)' 관련 '인민군 각 군에 즉시 작전에 진입할 수 있는 동원태세를 긴급지시 하였다'며 '예상할 수 없는 참사를 빚게 될 것이며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위협(10.8, 중통·중방)
 - 미 행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北)가 아니라 미국이 먼저 움직이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임.
 - 美 '조지 워싱턴'호 참가 '韓美 연합해상훈련(10.8~10)'에 대해 '우리(北)에게 노골적인 핵위협을 가하면서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호전적 기도의 발로'라며 "내외 호전광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10.7, 중통·노동신문/핵항공모함도 괴멸의 운명을 돌려세울 수 없다)
 - '미 핵항공모함이 왜 남조선에 기어들었는가' 題下로도 '韓美 연합해상훈련'을 "우리(北)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흉심"이라며 "강경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10.7, 평방)
- 北 「국방委」 정책국 대변인, 10.8 우리 정부의 '北, 대통령 실명 비난' 등 지적(품격있는 언행 구사 등)에 "국가원수 지칭문제 해결을 바라다면 먼저 우리(北)에 대한 비방을 중지하라"고 주장 중통기자 問答(10.9, 중통·중·평방)
 - 우리는 박○○와 그 일당의 차후움직임을 지켜보려고 함.
 - 통일부와 새누리당 및 언론들 지적(대통령 실명 거론 비난 등) 등에 대해서도 "괴뢰들이 여론을 오도하면서 동족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북남관계는 끝장날 것"이라고 책임 전가 협박(10.8, 중통·민주조선/여론을 오도하는 남조선 괴뢰패당)
 - '북인권법'은 "반민족적인 대결약법" ·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동족대결계획" 및 CBS 등 언론 보도('北 이산상봉 연기' 관련) 등 반복 비난 지속(10.8, 평방/사태악화를 부추기는 정치적 도발·사태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망동 등)



- 【「조평통」 대변인 담화(10.10)】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초안 삭제)와 정치권의 음성파일 공개 추진에 대해 “우리(北)의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이라며 ‘배후에는 박○○가 있다’고 대통령 실명 비난(10.10,중통·중방)
 - 정치적 아욕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정치적 패륜 무리, 정치깡패 집단으로써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무지막지한 망동임.
 - 회의록을 공개한다면 우리(北) 역시 남조선 위정자들과 특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비위 맞추는 소리를 한데 대해 전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함.
-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대답(10.12)】 통일부 정부입장(北에 1명의 존엄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천만의 존엄이 있다 등) 발표 관련 “또 하나의 참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중대도발”이라며 ‘최고존엄과 체제를 혈똥하는 자들에 대해 추호도 용서치 않고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재차 위협(10.12,중통·중·평방)
 - ‘최고존엄에 대한 괴뢰들의 도전행위가 각이한 형태로 감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남북관계사상 유례없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며 ‘최고존엄에 도전하는 자들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지속 위협(10.12,중방/특대형 도발의 대가는 무자비한 징벌)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中 외교부 "6자회담 관련국에 자제 호소">(10/9, 연합뉴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 관련 국들은 최근까지 나타난 반도의 정세 완화 분위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며 "자제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유지해나가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 이 발언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남 총공격 명령 대기를 지시했다는 보도와 남해상에서 실시될 예정인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됨.
 - 또한, 대변인은 관련국들이 조기에 6자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 문제를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프로세스로 돌려놓기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전한 입장차...길어지는 북핵대화 탐색전>(10/11, 연합뉴스)
 - 북한이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난 5월 이후 관련국간 접촉이 계속되고 있지만,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가장 큰 걸림돌은 영변 핵 단지에 핵시설 확충 및 재가동과 관련된 징후가 계속 관측되고 있는 등 북한의 태도임.
 - 한·미·중은 북한의 핵 능력 강화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모두 동의하나, 비핵화 대화로 가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은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는데 비해, 한국과 미국은 이른바 '2·29+α'로 요약되는 비핵화 사전조치를 통해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해 입장차가 존재함.

나. 미·북 관계

- <미국무, "北은 모든 핵 계획 포기해야"...이란과는 "다른 기준">(10/11, 연합뉴스)
 -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국무부 고위급은 10일, 북한은 군사목적 뿐 아니라 모든 핵 계획과 핵 물질을 포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 대화에 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 그 고위급은 북한의 대화 공세에 대해 핵 개발 능력을 온존시키면서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을 끌어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케리 장관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9일 브루나이에서 가진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책을 협의 했으며 여전히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는 인식을 드러냈음.

- <“케네스 배 모친, 아들 면회 허락한 北당국에 감사”>(10/12, 연합뉴스)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의 어머니 배명희 씨는 10일부터 닷새일정으로 방북했으며, 11일 오전 칼 올라프 안더손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와 평양친선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들을 만났다고 보도했음.
 - 배명희 씨는 "북한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들과 면회를 허락해 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며, 스웨덴 대사가 참석한 '3자면회' 이후 아들을 한 시간 반 동안 따로 면회했음.
 - 케네스 배씨도 어머니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설명하고 미국 정부가 자신의 석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고 함.

- <북한, 미국의 비핵화 조건 불가침조약 체결 거부>(10/12, 조선일보)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난 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비핵화를 조건으로 제의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 통신은 또 "미국은 지난 2월 북한 핵실험을 구실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고 한반도 내 군사훈련 같은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북한은 이번 주 초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해상훈련을 맹비난한 바 있으며,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11개월째 억류 중인 케네스 배 모친의 평양방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음.

다. 중·북 관계

- <中 시진핑, 北 김정은에 답전…"친선관계 발전">(10/9,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보낸 축전에 답전을 보내왔다고 보도했음.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달 말,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국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에게 중국 정부수립 64주년(10월 1일) 기념 축전을 보낸바 있음.
 - 시 주석과 리 총리, 장 상무위원장 명의로 된 이 답전은 김 제1위원장의 축전에 사의를 표하며 "새로운 시기, 새로운 정세 하에서 두 당,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전통적인 중·북 친선협조관계가 끊임 없이 발전되리라고 믿는다"고 밝혔음.

라. 일·북 관계

- <“일본, 대북압박 '경제·외교→군사' 전환">(10/8, 연합뉴스)
 - 미국 외교협회(CFR)의 쉐라 스미스 선임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발간한 '일본의 전략적 사고 속의 북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반도 정



세를 좌우하려는 일본의 노력은 최근 들어 점차 영향력을 잃고 있다"고 평가했음.

-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더 이상 경제, 외교적 측면에서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함.
- 그러나 보고서는 군사전략 측면에서 대 북한 영향력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북한의 잇단 도발은 자위대의 임무 전환과 교전 수칙의 변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 <김정일, 납북 日人 메구미 生死경우별 득실분석 지시>(10/9, 연합뉴스)

- 산케이신문 9일자에 따르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출신 탈북자인 장진성(42)씨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3년 초 일본인 납북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가 사망했다고 일본 측에 통보한지 4개월 후 '메구미가 생존한 경우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손익을 분석해 신속하게 보고할 것'을 공작기관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이는 결국 요코타 메구미가 사망했다는 김 위원장의 당시 발언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적어도 2003년 초 시점에는 요코타 메구미가 살아 있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음.
- 지난 2004년 탈북한 장씨는 당시 일본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8명이 사망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등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말한 뒤, "북한 측이 새로운 대일전략을 세워야할 필요가 있었기에 그와 관련한 지시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마. 기 타

● <위트 "북한, 핵-미사일실험 유예 이행 용의">(10/10, KBS뉴스)

- 지난달 말 독일에서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을 만난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교수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예를 이행할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밝혔음.
- 위트 교수는 "이는 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는 초기에 이뤄질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음.
- 이는 북한이 지난해 '2·29합의' 당시 거론됐던 비핵화 사전조치의 일부이며, 당시 북한은 미국의 식량 지원을 대가로 핵·미사일 실험유예와 함께 우리농농축프로그램 중단 등의 사전조치들을 이행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朴대통령, 케리 美국무장관 면담...한반도 정세 논의>(10/10,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브루나이에서 10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 등 한·미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음.
- 박 대통령과 케리 장관의 비공개 회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미간 당면 현안인 북핵 문제 등 북한 및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임.
- 또한, 한미동맹 60주년을 계기로 한·양국 협력 방안,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의 후속조치에 대한 점검도 대화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보임.

나. 한·중 관계

● <朴대통령-시진핑 회담서 '對北-FTA'문제 논의>(10/7, 연합뉴스)

- 박대통령은 7일 APEC정상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5분간 양자회담을 통해 대북문제, 한·중 FTA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음.
- 정부 고위관계자는 시 주석은 비공개 대화에서 "북핵 보유를 반대하며,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 석 달 전 한·중정상회담 발언의 연장선상이나 표현이 명확해 진 것이라고 전했다.
- 이에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보는 기본적 시각은 북한 비핵화의 실제적 진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단시일 내 이뤄지도록 중국 측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음.
- 한편, 양국 정상은 한·중FTA 2단계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상을 계속하자는 입장을 교환했다고 함.

● <시진핑 "DMZ평화공원 지지…할 수 있는 일 검토하겠다">(10/8, 동아일보)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남북 관계 변화는 두꺼운 얼음이 녹는 과정"이라며 "지난 수개월 동안 한반도 정세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해준 박 대통령의 전략적 안목을 평가한다"며 힘을 실어줬음.
- 북한이 비난하는 DMZ공원에 대해 시 주석이 공식적으로 첫 지지를 표명하며 "중국이 할 일을 검토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북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시 주석은 "6자회담의 조기 개최로 대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반면, 박 대통령은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6자회담 재개를 두고 양국 간 다소 이견을 나타내기도 했음.



● <한-중 최고 외교안보사령탑, 北문제 '상시 컨트롤'나선다>(10/11, 국민일보)

- 10일 정부소식통은 중국의 외교안보정책 최고위급 정책담당자인 양제츠 국무위원이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전략대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 일정을 조율중이며, 오는 11월쯤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략대화'란 두 나라 간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공동 목표 설정을 위한 대화채널로, 두 인사는 이를 통해 북핵 해법 등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에 대한 본격 협의는 물론 양국 최고위급 인사 간 상시 전략대화를 이어가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최고위급 전략대화는 한·중 양국이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심화 발전됐음을 보여주며, 이와 더불어 양국 정부는 차관보급 또는 국장급이 참여하는 '2+2'(외교·국방)회의, 국책연구소 간 전략대화도 추진 중이라고 함.

다. 한·일 관계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일 공동조사 추진>(10/8, 연합뉴스)

- 마이니치신문은, 7일 다니카 순이치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참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 출석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 정부와 함께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음.
- 그는 "국제원자력위원회(IAEA)가 창구가 될 것이며 특히 우려가 큰 한국이나 동남아시아 각국도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음.
- 앞서 이병기 주일 한국대사도 일본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 조짐이 있는 것을 고려해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상황과 수산물 오염 정도를 공동조사하자고 일본에 제안한바 있음.

● <아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라도"...한일회담 '구애'>(10/9,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브루나이에서 "한·중 양국 정상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라도 기회를 잡아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자회견에 말했다고 보도했음.
-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박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양자 회담까지 했으나, 아베 총리는 한국과 중국 어느 쪽 정상과도 실질적인 대화를 하지 못했음.
- 아베 총리가 '대화를 원한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한·중·일 3국 관계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최근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라. 미·중 관계

● <미·중, APEC서 기싸움…오바마 불참에 시진핑 주도>(10/8,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은 7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 질서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기싸움을 벌였으나, 일각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섣다운 여파로 회의에 불참하면서 중국이 회의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평가했음.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연설을 통해 "우리는 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TPP 참가대상국 정상들 일일이 만나 올해 말까지 TPP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케리 장관 다음으로 연단에 올라 "중국은 환태평양 국가들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음.
- 실제로 중국은 TPP에 맞서 동남아시아 16개국에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 <美 "중국과 '완전한 핵해 폐기'협력 강화 합의>(10/11, 연합뉴스)

- 미국 고위 당국자는 미국과 중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북한이 최근 6자회담 등의 조건 없는 재개를 주장하고 있으나 비핵화를 위한 사전 조치가 우선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음.
- 이 당국자는 특히 "양측에서 이런 목표와 관련해서 어떤 이견도 없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압박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고 강조했다.
- "협상테이블로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폐기시키는 게 목표"라며 "협상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단순히 협상만 하는 것으로는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마. 미·일 관계

● <美·日 육군 합동 군사훈련 취소…'섣다운' 여파>(10/9, 연합뉴스)

- 8일 일본 육상자위대 관계자는 미 육군 측으로부터 최근 미국 정계의 예산 관련 대치상황 때문에 미군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의 합동군사 훈련을 취소하게 됐음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음.
-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일본 미야기현 오조지하라에서 실시될 이번 합동 훈련에는 일본 육상자위대 600명과 미국 육군 400명 등 1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탄 사격과 화생방 공격 대응 등이 포함될 예정이었음.
- 일본 국방성은 시가현과 고치현 등에서 수직 이착륙 수송기를 활용하는 미 해병대와의 합동 훈련 등 나머지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설명



했음.

바. 중·일 관계

- <“작년 日 전투기 오키나와 기지 급발진 배증”>(10/7, 연합뉴스)
 - 요미우리신문은 7일,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작년에 전투기가 긴급 발진한 횟수는 318회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음.
 - 이는 2011년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이며 중국이 센카쿠 열도 영공에 무인 정찰기를 보내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음.
 - 신문은 특히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2주년을 이틀 앞둔 지난달 9일 센카쿠 영공을 비행한 무인기가 중국이 최근 개발한 정찰기로 추정된다고 하며, 중국의 무인기를 동원한 일본 감시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논평했음.
- <“센카쿠 갈등” 中日, APEC 무대서도 티격태격>(10/7, 연합뉴스)
 - 6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존 케리 미국국무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은 지난 4일 APEC 정상회의장에서 회동한 뒤 동중국해의 현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제적인 일방적인 행동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성명은 이어 “오판이나 사고를 피하고 긴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 국제법 존중, 방해받지 않는 무역과 항해의 자유를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리 바오둥 외교부 부장은 APEC은 경제협력무대로 다년간 정치안보문제와 민감한 논쟁을 끌어들이지 않는 전통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중국, 아베에 “야스쿠니 참배하면 대가치를 갓”경고>(10/10, KBS뉴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감행한다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의 이번 발언은 이치마 이사오 일본 내각관방이 지난 7일 오사카시 강연에서 아베 총리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야스쿠니 신사의 추계예대제에 참배하길 바란다고 밝힌데 따른 반응임.

사. 일·러 관계

- <일·러 정상회담 “쿠릴열도, 계속협상”의견일치>(10/8, 교도통신)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저녁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쿠릴열도 협상 진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합의하고, 차관급 협의 개최에도 의견을 같이 했음.
 - 영토협상을 둘러싼 제1차 차관급협회는 지난 8월 개최된바 있으며, 아베 총리는 “가능한 조속히 차기 협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오는 11월 1일 도쿄에서 처음으로 열릴 '2+2'외교·국방 장관회의에서 "확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음.

- 또한 아베총리는 '2+2'외교·국방장관회의에 대해 안보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협력을 심화해 깊은 관계를 도모할 기회, 성과 있는 협의가 되도록 담당 각료에게 지시할 것임을 밝혔음.

● <러 군용기 日영공 근접 비행...일본 대응 출격>(10/10, KBS뉴스)

-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9일(현지시간) 일본 자위대 발표를 인용해, 러시아의 투폴레프-142 2대와 일류신-20 정찰기 1대가 일본 영토로 근접 비행을 하자 일본 공군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했다고 전했다.
- 러시아 군용기들은 일본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본 공군이 전투기들을 발진시키자 일본 영공 주변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달 초에도 러시아 대잠수함기 여러 대가 일본 혼슈섬으로 접근한바 있으며, 지난 8월 등 러시아 군용기들의 일본 영공 침범 및 근접 비행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 일본은 자위대 소속 전투기를 대응 출격하고 있는 상황임.

아. 중·러 관계

● <중·러, 2015년 '전승 70주년 합동기념행사'실시>(10/8, 교도통신)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7일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5년에 러시아와 합동으로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방침을 밝혔음.
- 시진핑 주석은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합동기념행사는 지난 달 키르기스에서 열린 중·러 해상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지적했으며, "중·러 공통의 승리에 경의를 표한다"고 공표했음.
-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러시아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로 대일관계가 악화됨을 타 중·일과의 관계 확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자. 기 타

● <中, 마일호주 연합전선에 '경고'>(10/7, Guardian)

- 중국은 7일, 지난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장에서 미국과 일본, 호주의 외무장관이 동·남중국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3국이 이를 영토 주권 이견에 개입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라"고 경고했음.
- 3국이 공동성명에서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센카쿠열도 영유권 논쟁을 빚고 있는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어서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유관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공동성명 발표와 같은) 행보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모두의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함.

- <“중·러, 아세안+주변열강 새 안보대화 제안”>(10/7, 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제안을 시작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18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새로운 안보대화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함.
 - 당초 중·러는 오는 10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EAS에 맞춰 새로운 안보 대화를 개최하려 했지만 아세안 일부 회원국들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중복된다는 등 이의를 제기해, 11월 브루나이에서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함.
 - ARF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회원국이 겹치는 별도의 안보 틀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이 중동문제에 붙잡혀있는 동안 동남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와 동·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문제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한 중국이 의기투합한 것으로 풀이됨.
- <“아시아 패러독스”에 빠진 한·미·일 3각 외교전선>(10/8,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발행된 영문 학술지 '글로벌 아시아' 가을호에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외교: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기고문에서 "다자적 협력의 전통이 부재한 동북아에서 신뢰외교를 확대 적용하자"는 화두를 던졌음.
 - 이는 동아시아의 이웃국가이면서도 과거사와 영토갈등 등의 갈등요인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한·중·일을 염두에 둔 말이며, 현실적으로 일본을 겨냥한 측면이 강함.
 -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조야에서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외교에 주력해야 하는 미 정부가 최근의 한·일 관계를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함.
 - 국익을 지키는 외교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이 세계최강국 미국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끝까지 밀고나가면서 국익을 극대화시킬 외교력이 있느냐를 잘 따져봐야 함.
- <푸틴, "한국 수출용 가스관 동해 해저따라 건설가능">(10/8, 연합뉴스)
 -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발리 APEC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가스관을 동해 해저를 따라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음.
 - 푸틴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가 북핵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북한 경유노선만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러시아 측의 사업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러시아산 가스의 한국 수출을 위한 가스관 건설 문제는 오는 11월 중순 한국에서 개최 될 한·러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것



으로 관측됨.

- <TPP 각료회담, 전면적 관세 철폐 기본 틀 합의>(10/8, 연합뉴스)
 -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12개국은 APEC정상회의 일정 외중에 사흘간의 별도 회동을 마치면서 전면적인 역내 관세 철폐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회담 소식통들은 각료들이 연말로 다가온 협상 시한에 맞추고자, 일본의 경우 당초 쌀 관세 논의 불가에서 협의로 선화하는 등 각국은 민감한 상황에도 관세 철폐 규정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보였다고 전했다.
 - 한편, 소식통들은 TPP 협상 참여국 가운데 OECD 회원국이 아닌 말레이시아, 페루, 베트남 및 브루나이 4개국에 대해서는 지적권 등에서 예외를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러, 군사협력협정 세부사항 합의>(10/10, 연합뉴스)
 -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7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9일(현지시간) 현지기자회견에서 "실무선에서 협의가 진행된 '한·러 군사협력협정'의 세부사항들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 '한·러 군사협력협정'은 1996년 체결된 군사협력 양해각서를 양국이 발전시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 형식으로 만든 것으로, 군 교육 교류와 해양 수색과 구조활동 등 양국의 국방 협력 확대 방안을 담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에 서명될 예정이다.
- <한·미·일, 해상훈련 10일 시작...미 항공모함 참여>(10/10, VOA)
 - 미국 7함대 소속 조지워싱턴 항공모함 강습단이 참여하는 한·미·일 해상훈련이 10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한국 남해상에서 시작됐으며, 이번 한·미·일 해상훈련은 당초 지난 8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연기된 것임.
 -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조지워싱턴 항공모함 강습단의 부산항 입항을 계기로 실시하는 '기회 훈련'이자 인도적 차원의 수색구조훈련이라고 밝혔다.
 - 미국 전력으로는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9만7천t급), 유도탄순양함 애티턴호(CG 54), 유도탄구축함 프레블호(DDG 88) 등이 참가했으며, 한국 전력으로는 이지스함, 구축함, 호위함 등이,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이지스함과 호위함 등이 참가했다고 함.
- <朴대통령, '아세안+3'서 동북아 평화구상 지지확보>(10/10, 연합뉴스)
 - 청와대는 '아세안+3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동북아에서의 협력이 더욱 진전된다면 동아시아 지역협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했으며, 참석국 정상들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 또한, 박대통령은 우리정부 주도로 성립된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 (EAVG II)'이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보고한 '2020년까지 동아시아 공동체 출범'비전이 아세안+3 협력으로 나아갈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